

무예도보통지 본국검보 조천세의 좌쌍수 파지법과 환집 기법 고찰

노병일(한국전통진검무예진흥원 원장) · 심준영*(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무예도보통지』 24기에 중 본국검법에서만 나오는 33가지 자세 중 조천세 원문의 의미와 좌쌍수 파지법, 환집 기법 및 범례의 분합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국검의 조천세를 중심으로 본국검보 한문본과 본국검총보, 한글로 된 언해본과 본국검총도의 그림을 비교하고 관련된 문헌을 비교 검토하였다.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국검보 원문의 그림은 좌측 손을 위로 한 좌쌍수 파지법이고, 본국검총도의 조천세 그림은 우측 손을 위로한 우쌍수 파지법으로 분리되어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파지법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무예도보통지』 범례에 따라 보와 도를 조합한 조천세의 좌우 회전이 그림에 반영된 것이다. 둘째, 『무예제보번역속집』 예검보 그림에 단병기의 좌쌍수 파지법과 우쌍수 파지법이 나타난 것은 동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바꾸어 잡는 환집이 이루어진 다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셋째, 좌쌍수 파지법의 이점으로 좌우 환집이 원활하면 단병기와 장병기를 쉽게 운용함으로써 공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예도보통지』 범례에서 보와 도로 분합된 각 자세들의 기법을 연결하고 종합하여 해석해야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본국검, 무예도보통지, 조천세, 환집, 좌쌍수파지법

* simjy@naver.com

I. 서론

본국검(本國劍)¹⁾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나오는 검법 중 하나로 양날 검(劍)의 그림이 아닌 외날 도(刀)로 그려져 있다.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 조선시대 정조의 명으로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가 참여하여 삼국의 서적 145종의 도서를 참고하고, 기존의 군사무예를 표준·체계화시키기 위하여 무예(武藝)의 도(圖: 그림)와 보(譜: 해설)를 활용해서 통지(通志: 통찰하고 그 뜻을 기록)한 조선후기 군사 훈련 무예서이다.

이러한 『무예도보통지』는 군사관련 서적(書籍)인 병서류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무예병기 복식훈련방식 등 직접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판화의 특성 및 언해본(諺解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 있음(최형국, 2020)이 제시되고 있다.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전통무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우리무예 인증제도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통무예를 제도권에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수많은 전통무예 단체들은 서로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전통무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곽낙현, 2014).

이러한 상황에서 『무예도보통지』는 우리나라 전통무예계의 표준 전통무예서로 통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전통무예 복원이라는 관심 속에서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을 기본으로 연구 복원한 본국검이 현재까지 전수되어지고 있다. 특히 본국검과 조선세법(朝鮮勢法)²⁾의 다양한 해석과 재연(再演)으로 전통무예를 표방하는 많은 전통무예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1) 本國劍이라는 명칭은 조선에 전승되는 모든 검법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이면서 동시에 <무예도보통지>에 ‘新劍’이라는 俗稱으로 기록된 검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다(정재성, 김성인, 2016).

2) 무비지(武備志)는 명나라 1621년 모원의(茅元儀)가 지은 병법서로 총 240권 중 86권에 유일하게 나오는 검법으로 조선세법(朝鮮勢法)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무예도보통지에서는 예도(銳刀)로 기록하고 24세 이의 증4세를 추가하고 있다.

본국검법의 세(勢)와 해석 관련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도검자세에서 자연과 동물에 대한 자세는 예도와 본국검에서만 보였으며, 이러한 자세에 대한 어원의 개념정리와 세밀한 분석을 제안하였다(곽낙현, 2007). 또한 『무예도보통지』의 자세 설명과 그림을 비교하고 공통적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그 의미와 구성요인을 밝히고 분류를 시도하였다(박금수, 2005). 그리고 본국검보(本國劍譜)의 원문, 총보(總譜), 총도(總圖)의 연결을 통해 기예 재현은 세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기존 단체들의 자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수련 기법의 특성과 전수방법의 차이에 따라 해석론이 다르다(전영식, 2008). 또한 각 단체별 본국검 해석에 대한 차이는 각 단체에서 수련해온 검술의 특성과 운용법에 있음을 제시하며 해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재민, 2002).

이상의 선행연구와 같이 『무예도보통지』의 24기예에서 자세에 대한 분석과 기법의 비교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법 내용 중에 파지법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본국검법 세의 해석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단체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해석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무예도보통지』의 범례(凡例: 일러두기)에서 검보(劍譜)와 총보, 총도, 언해본을 나누어 제시한 목적이 서술되어있다. 범례 원문³⁾의 주해에 “도(圖)는 아래에 있고 보(譜)는 위에 있으니 보에 대한 설명은 부득불 그림을 분합(分合: 나누고 합치는 형태)하는 데 따랐다”(박정청, 2007: 22-24). 이것은 검보의 원문 해석 시 기법을 분합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검보와 총보의 그림, 총도의 그림을 참고하고 종합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례의 총도에 관하여 “여도(輿圖)의 백리척법(百里尺法)에 의거하여 기반영격(棋盤影格)을 계승하여 균보법(均步法)⁴⁾

3) 正組 命撰(1790). 原本 武藝圖譜通志. 辛成大(1998) 펴낸이, 서울: 東文選, p. 범례 (凡例) 三 後面, 원문: 圖在下而譜在上譜說不得不隨圖分合.

4) 正組 命撰(1790). 상계서, p. 범례 四, 원문: 輿圖百里尺法承以棋盤影格李均步法. 균보법(均步法)은 보(步)에 따라 거리를 균등하게 나누는 법으로 보(步)는 옛날 거리의 단위이며 1보는 주척(周尺)으로 8척(尺) 또는 6척(尺) 4치(寸)의 설이 있으나 보통 6

으로써 하였다” (박정청, 2007: 23). 이것은 총도에 나타난 각각의 자세는 이동하는 보법을 적용하여 총도의 그림에 제시하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무예도보통지』의 범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석의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일관성 있는 자세와 기법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국검보 총 12단락 중 6단락의 조천세는 하늘을 향해 칼을 머리위로 하여 들어 올리는 자세이며, 이때의 칼을 잡는 좌측손이 위로한 파지법이 특징적이다. 조천세 직전의 표두압정세(豹頭壓頂勢)에서는 우측손을 위로 하였지만 조천세에서 좌측손이 위로 바뀌어 진 것이다. 이러한 좌우 손이 바뀌어진 파지법은 주로 장병기(長兵器)에서 환집(換執)⁵⁾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국검보와 본국검총도(本國劍總圖)의 조천세 그림에 대한 주요 설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성목(2013)은 조천세 의미에 대하여 ‘태양이 여명에 수평선에서 떠오르듯 장엄하고 굳센 기상으로’, 조선세법의 흔격세(掀擊勢)에 나오는 우수우각(右手右腳)의 조천세가 본국검법의 조천세와 같은 동작이다.’ 또한 이국노(2016)는 ‘조천세는 안법으로 예도의 조천세⁶⁾와는 다르며 도보(圖譜)에 나오는 그림은 동작을 하는 모습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국검을 도(刀)로 재연한 조천세 동작은 도를 머리 또는 이마 위로 향해 올린다는 내용은 대부분 일치한다. 그렇지만 칼을 잡는 손과 다리 동작에 있어서의 언급은 매우 미흡하며, 일부에서 조천세 동작은 ‘오른발을 높이 들고’, ‘우수우각’이라는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무예도보통지』 본국검보의 그림에는 좌측손이 위인 좌쌍수 파지법(이후 좌조천세로 칭함)으로 표현되고 있고, 본국검총도에는 우측손이 위인 우쌍수 파지법⁷⁾(이후 우조천

척(尺)을 1보(步)라 하고 300보를 1리(里)라 하였다(박정청, 2007, p. 543).

5) 무비지(권89) 소림군세 도보(少林棍勢 圖譜)의 좌우헌화세(左右獻花勢)에서는 환수(換手)로 표기되어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무예제보번역속집. p. 0768).

6) 흔격세에 나오는 좌각우수 조천세를 말하며, 예도 24세 중 19번째 해당한다. 원문: 掀擊勢 掀擊勢者即掀擊也. 法能掀挑上殺擄步鑽殺左腳右手朝天勢向前退步坦腹刺看法.

7) 우쌍수 파지법은 칼을 두 손으로 잡을 때 방패(코등이)아래 우측 손을 위(앞)로 잡고, 칼의 손잡이 맨 아래(뒤)를 왼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한 손의 칼로 겨룰 때 우측

세 칭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좌우 파지법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국검보와 본국검총도, 본국검총보(本國劔總譜) 및 언해본에 나오는 조천세 그림과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 24기에 중 유일하게 본국검법에서만 나오는 원문의 좌조천세 도와 보를 비교하고, 조천세의 좌쌍수 파지법과 환집(換執) 기법 및 『무예도보통지』 범례의 분합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재조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례의 분합 요소에 따라 본국검보의 좌조천세와 본국검총도의 우조천세 그림에서 서로 다른 파지법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 둘째,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의 왜검보에서 좌쌍수 파지법 동작을 비교한다. 셋째, 『무예도보통지』에서 좌쌍수 파지법에 해당된 그림을 통해 그에 대한 이점과 전기세(展旗勢)의 사례를 통한 범례의 분합된 요소를 비교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정사(正史)⁸⁾에서 기록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문헌인 신대성(1998)의 『원본 무예도보통지』와 국립민속박물관(2004)의 『무예문헌자료집성』 영인본(影印本)⁹⁾을 선택하여 문헌 고찰(考察)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본국검 조천세를 해석하는 관점에 대하여 공통성 부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손을 주로 사용하는 우측손잡이가 주로 사용하는 파지법이다. 반면에 좌쌍수파지법은 좌측손이 주가 되는 좌측 손잡이의 파지법이라 할 수 있다.

8)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원고본 3, 243책) 소장

9) 『무예도보통지』: 서울대학교 규장각(목판본 4권4책) 소장, 『무예제보(武藝諸譜)』: 수원화성박물관,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원간본, 마이크로필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립한글박물관(중간본 목판본 1책) 소장. 『무예제보번역속집』: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목판본 1책) 소장, 『기효신서(紀效新書)』: 국립민속박물관(18권 7책, 목활자본) 소장, 『무비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소장.

II. 본국검보 좌조천세 도(圖)와 보(譜)의 비교

본국검보는 총 12단락¹⁰⁾으로 되어있고, 그 중 조천세는 6단락에 해당되며, 6단락의 원문과 언해본 주해는 다음과 같다(박정청, 2007: 296).

- 원문: 作豹頭壓頂勢左右纏右手右脚前一刺仍右廻後入作朝天勢兩手頂劍高舉右廻進前向後
- 언해본: 豹頭壓頂勢를 호디左좌우로감아右우手右우脚각으로 앞흔한번디르고인호아올흔편으로도라뒤호로드러와朝天勢를 호디두손으로칼을니마의높히들고올흔편으로도라앞호로나아가뒤흔向향호아
- 언해본 주해: 표두압정세를 하되 좌우로 감아 우수우각으로 앞을 한 번 찌르고 인하여 오른편으로 돌아 뒤로 들어와 조천세를 하되 두 손으로 칼을 이마의 높이 들고 오른편으로 돌아 앞으로 나아가 뒤를 향하여

<그림 1>은 원문의 6단락에 해당되는 표두압정세(가)와 좌조천세(나) 그림이고, 좌조천세의 손과 다리의 위치를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색칠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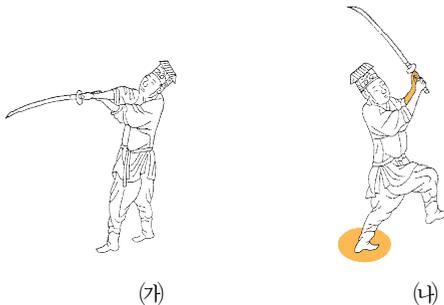


그림 1. 본국검보의 6단락 도(圖)¹¹⁾

10) 단락구분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본국검보의 한 면, 페이지(page)를 말한다.

11) 正組 命撰(1790). 전게서, p. 卷之三. 十三 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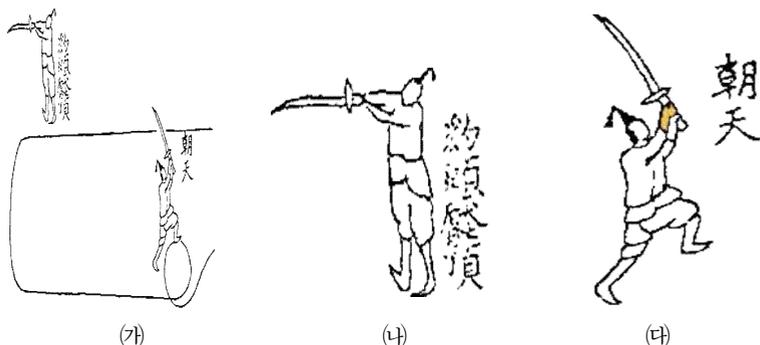


그림 2. 본국검총도 6단락 도(圖)¹²⁾

<그림 1> 본국검보의 6단락 그림과 <그림 2> 본국검총도 6단락의 그림의 자세를 비교한 결과, <그림 1>의 (가)와 <그림 2>의 (나) 표두압정세는 좌측¹³⁾을 향한 그림은 같지만 앞으로 나와 있는 다리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원문의 표두압정세에서 행해지는 ‘좌우전 우수우각 전일자(左右纏 右手右脚 前一刺)’의 의미를 실제 동작과 연결한다면 우측다리(右脚)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른 해석일 수 있다. 이렇듯 본국검보의 원문과 검보 아래 제시된 그림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동작의 진행에 있어서 각법(脚法)인 다리의 이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표두압정세 본국검보 <그림 1>의 (가)와 본국검총도 <그림 2>의 (가) 다리 위치가 다른 것은 이동 동작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무예도보통지』 범례의 분합 기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본국검보 <그림 1>의 (나)와 본국검총도 <그림 2>의 (다) 조천세에서 우측을 향한 상태에서 우측발이 든 동작은 일치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다리의 뒤꿈치 위치와 칼을 잡은 좌우 양손의 위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뒤꿈치 위치가 <그림 1>의 (나)는 지면에 붙어있고, <그림 2>의 (다)는 지면에서 떨어져

12) 正 組 命撰(1790). 상계서, p. 卷之三 十七.

13) 실기제언에서 그림의 좌측(왼쪽)은 전면, 우측(오른쪽)은 후면 방향으로 진행된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칼을 잡고 있는 손의 위치가 <그림 1>의 (나)는 좌측손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반면에 <그림 2>의 (다)는 우측손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

이상과 같이 조천세 자세를 세밀히 살펴보면, 본국검보와 본국검총도에서 검을 잡은 좌측손과 우측손의 위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좌조천세 그림의 손과 다리, 뒤꿈치 위치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본국검총도에 나오는 우측 손을 위로한 우조천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국검보나 본국검총도를 바탕으로 좌우 손과 다리의 위치나 동작 진행에 따른 이동을 반영한 세밀한 검토와 재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천세 동작에서 검을 잡은 좌우 파지법이 다름을 보여주는 본국검보 <그림 1>의 (나)와 본국검총도 <그림 2>의 (다)의 조천세 동작에서 칼을 바꾸어 잡는 환집의 의미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본국검총보로 본국검 전체의 연결 동작을 선과 함께 이동 및 회전으로 표현하고 자세의 이름을 표기한 것이다. <그림 3>의 (가)에서 진행 순서의 연결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천세(朝天勢)와 좌협수두세(左挾獸頭勢)를 연결하는 선이 시계반대 방향의 좌측으로 회전(왼쪽 굴렁쇠 모양)하였고, 선위에 글자는 우측 회전(右廻)으로 표기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좌요격세(左腰擊勢)와 우요격세(右腰擊勢)를 연결하는 선이 시계반대 방향인 좌측으로 회전(왼쪽 굴렁쇠 모양)하였고, 선위에 글자는 좌측 회전(左廻)으로 표기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우요격세와 후일격세(後一擊勢)를 연결하는 선이 시계 방향인 우측으로 회전(右廻, 아래쪽 굴렁쇠 모양)하였고, 선위에 글자는 우측(右廻)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연결선을 기준으로 진행 순서를 살펴보았을 때, 회전 방향에 대한 좌우 표기가 일관성있게 표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가) 그림의 굴렁쇠 회전 모양에서 조천세와 좌협수두세를 연결하는 회전은 (나)의 그림으로 비교해볼 때, 좌측 회전(左廻)로 표기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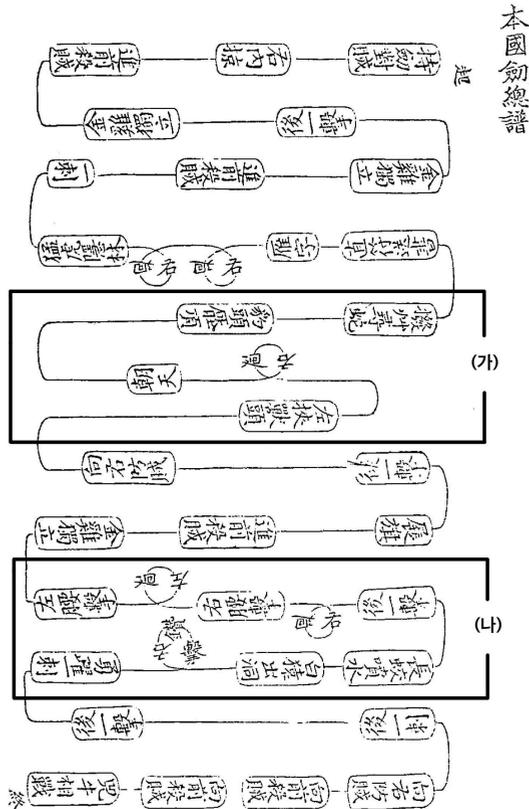


그림 3. 본국검총보 6단락 도(圖)¹⁴⁾

그러나 (가)에서 우측 회전(右廻)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되었거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국검보 원문에 우회후입(右廻後入)¹⁵⁾은 좌조천세에 해당하고<그림 1>의 (나), 균보법으로 작성

14) 正組 命撰(1790). 상계서, p. 卷之三 十六.

15) 우회후입은 우측으로 회전하고 뒤로 돌아서면 후방을 향한다. 언해본 참조 ‘오른

된 본국검총도 <그림 2>의 (가)에서 진행 선의 굴렁쇠 회전으로 볼 때 좌회전을 하면서 우측손이 위인 우조천세로 표현(그림 2의 다)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본국검보에 제시된 조천세 그림과 본국검총도에서 제시된 조천세의 그림이 달랐고, 본국검총보에서는 동작의 진행 선과 굴렁쇠 모양에 따른 좌우 회전 표기가 일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국검보의 원문의 그림은 좌측 손을 위로 한 좌쌍수 파지법이고, 본국검총도의 조천세 그림은 우측 손을 위로한 우쌍수 파지법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파지법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무예도보통지』의 범례에서 보와 도를 분합하고 균보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본국검총보의 조천세 연결 동작 진행에 따른 회전으로 인해 본국검총도의 우쌍수 파지법과 본국검보의 좌쌍수 파지법 그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조천세 동작의 손과 다리 위치나 방향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밀한 검토와 재연을 해야한다.

Ⅲ. 좌우 쌍수파지법과 좌우 환집 기법의 고찰

앞서 제시한 본국검보, 본국검총보, 본국검총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조천세의 좌쌍수 파지법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좌쌍수 파지법과 좌우 환집에 대한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조천세의 좌쌍수 파지법과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좌수(左手)를 위로 한 좌쌍수 파지법으로 제시된 그림은 『무예제보번역속집』의 왜검보(倭劔譜)에서 상대와 마주보고 교전하는 제미살세(齊眉殺勢)와 무적사적세(撫劔伺賊勢)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의 (가)는 서있는 자세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올릴 때 칼을 눈썹까지 들어 올리는 자세이다. (가)의 좌측 그림

편으로 돌아 뒤로 들어와' (박청정, 2007, p. 296).

은 좌측손이 위쪽으로 하여 잡은 좌쌍수 파지법이고, 우측 그림은 우측손이 위쪽으로 하여 잡은 우쌍수 파지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의 원문 ‘개이제미살세각진일보(皆以齊眉殺勢各進一步)’는 ‘모두 눈썹까지 올리는 자세로 각각 한걸음씩 나아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문으로 미루어 볼 때, 좌우 발이 한걸음씩 나아가면서 좌측과 우측으로 손의 위치를 바꾸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바로 칼을 바꾸어 잡는 환집의 의미가 내포된 동작임을 알 수 있다.

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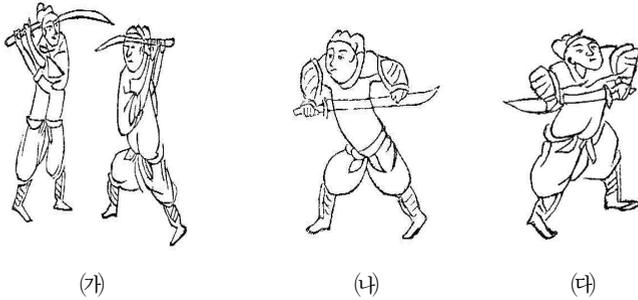


그림 4. 무예제보번역속집 왜검보의 좌쌍수 도(圖)¹⁶⁾

<그림 4>의 (나)는 우측 손으로 검을 잡고 좌측 손은 칼날 등을 아래로 누르며 막는 무검사적세이고, (다)는 좌측 손으로 검을 잡고 우측손이 칼날 등을 아래로 누르며 막는 무검사적세이다. 이러한 그림으로 볼 때, 단병기(短兵器)인 짧은 칼에서도 좌측 손과 우측 손을 자유롭게 바꿔 잡는 환집은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 원문 그림에는 굳이 표현을 하지 않고 좌우 동작만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환집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무예제보번역속집』(광해군 2년)은 북방 오랑캐와 남방의 일본 방비 대책으로 제작된 것으로 『무예제보』(선조 31년)¹⁷⁾에

16) 국립민속박물관(2004). 전계서, 무예제보번역속집. 그림(가)는 제미살세(p. 0218), 그림(나)는 무검사적세(p. 0222), 그림(다)는 무검사적세(p. 0223).

17)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명나라의 장군 척계광이 지은 병서인 기효신서를

서 누락된 권보(拳譜), 언월도(偃月刀), 협도곤(夾刀棍), 구창(鉤槍), 왜검(倭劍) 등의 무예를 훈련도감 도청(都廳)이었던 최기남(崔起南)이 정리한 무예서이다. 이중 왜검보는 환집의 의미가 내포된 동작임을 알 수 있듯이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왜검 기법 교습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선조실록』에 왜검의 기법을 익히기 위해 임진왜란 때 항복한 왜군인 여여문(呂汝文)을 중심으로 아동 수십 명을 뽑아 전적으로 맡겨 교습시키고, 이영백(李榮白)과 산소우(山所于)로 좌편과 우편을 삼아 모든 시재(試才)에 서로 승부를 겨루게 하여 급료도 지급하도록 훈련도감에 지시하였다.¹⁸⁾ 또한 왜검의 전체과정이 숙달된 장수와 아동을 선발하여 아동포살수대(兒童砲殺手隊)를 활용하여 다른 부대에 보급하도록 하였다.¹⁹⁾ 이와 같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왜검 기법이 조선검법과 더불어 각 부대는 물론 평민에게까지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검 기법의 활용은 환집의 의미를 내포한 좌쌍수 파지법의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고 환집과 관련하여 당시 무예서인 『무예제보(1598년)』가 편찬 된지 192년 이후에 장병기인 창이나 협도에서 손을 바꿔 잡는 환집이라는 용어를 『무예도보통지』의 협도보(夾刀譜)와 기창보(騎槍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5> (가)와 (나)는 『무예도보통지』 협도보로써 원문에 좌우환집(左右換執)이 표기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5>의 (가)는 좌측손을 위쪽으로 잡은 좌쌍수 파지법이고, (나)는 우측손을 위쪽으로 잡은 우쌍수 파지법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원문에 ‘좌우환집 좌수좌각 우회 우일격(左右換執左手左脚右廻右一擊)’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은 ‘좌우측 손으로 바꿔 잡아 왼쪽 손과 다리로 우측으로 회전하고 우측을 치고’라 해석할 수 있다.

토대로 원앙진법의 도입을 위해 대봉(大棒, 곤봉), 등패(藤牌, 방패), 낭선(狼筈), 장창(長鎗, 긴창), 당파(鎧鈚), 장도(長刀, 검)의 6기예를 중심으로 한교(韓嶠)가 정리 편찬함.

18) 국사편찬위원회(2015).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9일 경신 4번째 기사.

19) 국사편찬위원회(2015).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오 2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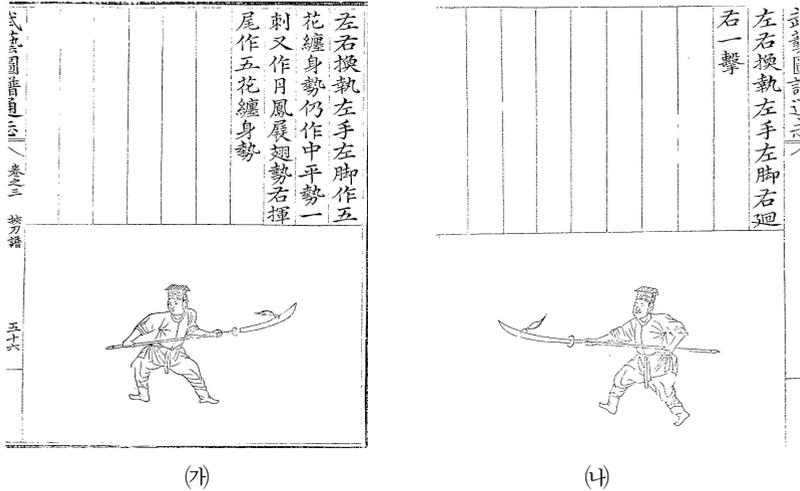


그림 5. 협도보의 환집 도(圖)²⁰⁾

그리고 마상무예(馬上武藝)에서도 환집의 용어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6>은 말을 타며 창을 휘두르는 기창보(騎槍譜)를 나타내는 원문 그림이다. <그림 6>의 (가)는 우측손이 창날쪽으로 향하여 잡은 우쌍수 파지법 그림이고, (나)는 좌측손이 창날쪽으로 향하여 잡은 좌쌍수 파지법 그림이다. (가)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 보면, ‘우수집전 좌수집후 고거과액(右手執前左手執後高舉過額)’로 표기되어 있고, 이는 ‘오른손으로 바귀 잡아 앞을 향하고, 좌측 손은 뒤를 잡아 높이 들어 이마를 지나면서 높이 들어’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6> (나)의 원문에서 ‘환집 좌우수작 좌전일자(換執 左右手作 左前一刺)’로 표기되어 있고, 이는 ‘좌우측 손으로 바귀 잡아 좌측 앞을 찌르고’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에서도 (가)의 동작에서 반대로 (나)의 동작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 正組 命撰(1790). 전게서, 卷之三 挾刀譜에 그림(가)는 五十六, 그림(나)는 六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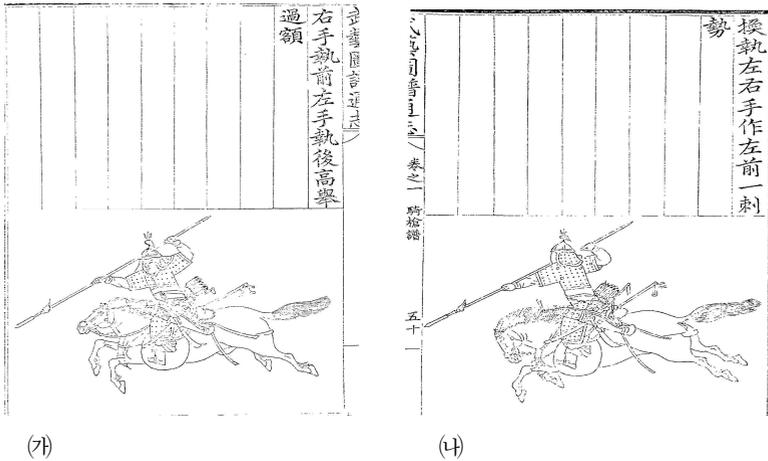


그림 6. 기창보의 환집 도(圖)²¹⁾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협도보와 기창보의 원문에서 환집이라는 용어가 표기되어 있어 그림에는 좌우 동작만 제시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칼을 바꾸어 잡는 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무예도보통지』 장병기의 협도보와 기창보 그림의 원문을 통해 환집이라는 표기가 있고, 칼을 바꾸어 잡는 환집을 통해 좌우 동작의 그림이 바뀌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예도보통지』 본국검보의 원문에 환집이라는 용어표기가 없다는 것은 검보를 창안했던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사료된다. 『승정원일기』에서 현종 14년(1673)²²⁾ 관무재(觀武才)를 통해 본국검이 처음 제시되었고, 63년 이전인 1610년 『무예제보 변역속집』에서 그림으로 환집의 의미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63년 동안 좌조천세와 우조천세가 이루어지는 환집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1) 正 組 命撰(1790). 상계서, 卷之一 騎槍譜. 그림(가)는 五十一 右, 그림(나)는 五十一 左.

22) 국사편찬위원회(2015). 승정원일기. 233책(탈초본 12책), 현종 14년 3월 11일 신사.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 출납과 제반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Ⅳ. 좌쌍수 파지법의 이점 및 범례의 분합 사례

일반적으로 칼이나 봉 같은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적을 대할 때 대부분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손에 무기를 잡는 우편수 또는 좌편수로 상대를 대처하게 된다. 또한 무기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통무예 국궁(國弓)에서 우궁(右弓: 오른손으로 시위를 당기는 사람, 오른손잡이)과 좌궁(左弓: 왼손으로 시위를 당기는 사람, 왼손잡이)을 볼 수 있으며(김집, 2005), 특히 기사(騎射: 말 위에서 활쏘기)²³⁾에서는 양손(우궁과 좌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양손으로 무기를 잡을 경우에는 찌르기에 강한 장창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뒤로한 좌쌍수 파지법으로 적을 대하고, 내려칠 수 있는 편곤에서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앞으로 우쌍수파지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된다. 따라서 생사가 걸린 실전에서는 좌·우 쌍수파지법을 자유롭게 운용할 때 공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빠르게 접근하여 들어오는 적에 대하여 공격과 방어를 위해 장병기는 장병단용(長兵短用)을 강조하며, 단병기에서는 단병장용(短兵長用)을 강조한다(김광석, 2002). 이러한 내용은 『기효신서』와 『무비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장창에서 틈홍문세의 용장귀단(用長貴短) 용단귀장(用短貴長)²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장병기를 짧게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단병기를 길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단병장용의 예로 본국검보의 8단락에서 좌회하면서 좌검(左劍)과 9단락에서 우회하면서 우검(右劍)을 들 수 있다.²⁵⁾ 이것은 회전하

23) 국립민속박물관(2004). 전게서, 무비지 권84, 궁(弓), p. 0453-0454.

24) 국립민속박물관(2004). 상게서, 기효신서 권4. 장창제(長鎗製) p. 350.

25) 8단락: 仍作 金鷄獨立勢 高舉劍 舉左脚 後顧 仍入左廻作 左腰擊勢 舉左脚 左劍 洗左項 9단락: 卽右廻作 右腰擊勢 舉右脚 右劍 洗右項.

면서 좌측과 우측으로 각각 칼을 잡아(편수 기법) 순간적으로 길게 뻗어 공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좌쌍수 파지법은 단병장용을 위한 방법 중 오른손잡이가 병장기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즉 좌쌍수 파지법은 좌측 손이 앞이고 우측 손이 뒤로 잡은 상태에서 길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손잡이의 우측 손, 뒷손 우편수로 길게 찌르고 베거나 칠 수 있는 강점과 좌우 환집이 원활하면 장병기를 쉽게 운용할 수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단병기에서 좌쌍수 파지법은 비슷한 실력을 갖춘 상대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고, 적의 기세(氣勢)는 물론 공격의 주도권을 갖고 승패를 높일 수 있는 심리적 기법의 요소의 이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환집의 장점으로 볼 때, 좌측손잡이와 우측손잡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좌·우쌍수파지법을 수련함으로써 한층 높은 기량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국검에서 범례의 분합사례를 살펴보면, 본국검보의 원문에 기법(技法)의 설명 없이 그림으로만 나타난 자세로는 백원출동세(10단락), 좌협수두세(7단락), 안자세(4단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문의 자세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분리하거나 합친 범례의 분합기법으로 제시된 본국검보와 본국검총도의 그림으로는 전일격(前一擊:2단락), 후일격(後一擊)과 좌우전(3단락), 표두암정세와 조천세(6단락), 향우방적세(向右防賊勢)와 좌협수두세(7단락), 전기세(8단락), 백원출동세(10단락) 등을 들 수 있다.

분합사례 중 전기세는 좌·우 조천세의 기법과 유사하게 원문에는 우내략만 제시되어 있고 원문 아래 그림은 우내략이 아닌 우외략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기세 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의 (가)는 전기세에 해당하는 8단락의 본국검보이고, (나)는 본국검보의 전기세를 확대하여 손목부위 파지법을 동그라미 표시하였다. (다)는 본국검총도에서 전기세에 해당하는 그림과 파지법을 표기한 것이다. <그림 7>의 (나)와 (다)는 얼굴과 몸이 좌측을 향한 전체적인 동작은 유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칼을 잡은 파지법과 발목의 위치가 다르다. 즉 <그림 7>의 (나)는 오른손의 팔꿈치를 아래로 굽혀 칼을 위로 올린듯하

면서 우측 발바닥이 지면에 닿고 있다. 이러한 그림 (나)의 자세는 ‘우내략’ 자세 이후에 연결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림 (다)는 오른손목과 팔꿈치가 왼손목 위에 교차되어 위를 향하고 있으며 우측 발바닥이 지면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다)의 자세는 오른발을 든 상태인 ‘우내략’ 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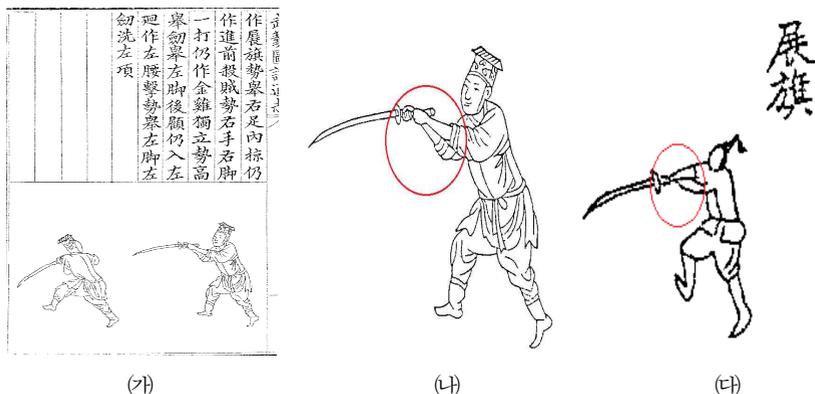


그림 7. 본국검보(本國劍譜)의 8단략 도(圖)²⁶⁾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7>의 (가)에서 본국검보 8단략 전기세의 원문에 해당되는 것은 “作 展旗勢 舉右足 內掠”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본국검보 1단략²⁷⁾에서 거우족 내략에 해당되는 내용을 본국검총보와 총도에서 살펴보면, 우내략(右內掠)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 7> (다)의 그림은 1단략에서 나오는 우내략의 그림과 일치하고 있으나 본국검보의 (나)의 그림은 전기세 원문의 우내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국검보 <그림 7> (나)의 그림은 칼이 우측다리 밖에서 정면을 향해 사선으로 올리는 동작인 우외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우외략이라고 나올

26) 正 組 命撰(1790). 전게서, 卷之三 본국검보, 十三.

27) 初作 持劍對賊勢 雙手 執柄 倚左肩 正立 右一廻 舉右足 內掠.

수 있는 근거는 본국검보 향우방적세(7단락, 12단락)²⁸⁾에서 우외략과 대조되는 좌외략의 원문과 그림으로 우외략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도보의 전기세 기법을 적용하여 『무예도보통지』 범례의 분합 요소에 따라 분리해 놓은 본국검총도인 <그림 7> (다)의 우내략과 본국검보의 <그림 7> (나)의 우외략을 연결하고, 범례의 균보법으로 작성된 본국검총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무예도보통지』 본국검의 조천세 연구에 있어서 본국검보, 본국검총도, 본국검총보, 언해본은 편찬 당시에 무예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 그리고 학문적 성향 등 다양한 변인들을 내포하고 있어 현대의 후학들이 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천세 해석에 있어 보(譜)와 총도(總圖) 중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기법을 해석하느냐의 따라 재연 동작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세밀한 측면에서 조천세 해석의 관점을 고찰하고 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천세의 두 손으로 검을 잡는 좌우수 파지법과 환집 기법에 초점을 두고 범례의 전기세 분합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국검보, 본국검총보, 본국검총도를 종합해 볼 때, 본국검보에 제시된 조천세 그림과 본국검총도에서 제시된 조천세의 그림이 다르게 나타났고, 본국검총보에서는 동작의 진행 선과 굴렁쇠 모양에 따른 좌우 회전 표기가 일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국검보의 원문의 그림은 좌측 손을 위로 한 좌쌍수 파지법이고, 본국검총도의 조천세 그림은 우측 손을 위로한 우쌍수 파지법으로 표기되어

28) 仍作 向右防賊勢 舉左足 外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파지법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무예도보통지』의 범례에 준하여 작성된 본국검총보의 조천세 연결 동작 진행에 따른 회전으로 인해 조천세의 우쌍수 파지법과 좌쌍수 파지법 그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무예제보번역속집』 왜검보에서 단병기인 짧은 칼에서도 좌측 손과 우측 손을 자유롭게 바꿔 잡는 환집은 편찬 당시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 원문 그림에는 굳이 표현을 하지 않고 좌우 동작만 제시함으로써 환집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후 『무예도보통지』 편찬 당시에는 장병기인 협도보와 기창보 그림의 원문을 통해 환집이라는 표기가 있고, 칼을 바꾸어 잡는 환집을 통해 좌우 동작의 그림이 바뀌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좌쌍수 파지법의 이점으로 좌측손잡이와 우측손잡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좌우 환집이 원활하면 단병기와 장병기를 쉽게 운용함으로써 공방의 주도권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예도보의 전기세 기법을 적용하여 『무예도보통지』 범례의 분합요소로 분리해 놓은 본국검총도의 우내략과 본국검보의 우외략을 연결하고, 범례의 균보법으로 작성된 본국검총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무예도보통지』 범례에서 보와 도로 분합된 각 자세들의 기법을 연결하고 종합하여 해석해야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들은 보와 도의 근거로 환집을 유추하여 해석하였으므로 조천세 환집 기법의 활용과 의미는 하나의 가설로써 남겨놓고자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국검법 조천세 원문에 환집과 연관될 수 있는 조천세 양수(兩手)의 의미나 사상 그리고 실기 재연 등의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낙현(2007).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된 도검자세에 관한 고찰 - 雙手刀(쌍수도), 銳刀(예도), 提督劍(제독검), 本國劍(본국검)을 중심으로

- **체육사학회지**, 12(1), 85-98.

- 곽낙현(2014). <무예도보통지> 연구동향 분석. **동양고전연구**, 55, 193-222.
- 국립민속박물관(2004). **무예문헌자료집성**. 기효신서 권4, 장창제(長鎗製), 350.
- 국립민속박물관(2004). **무예문헌자료집성**. 무비지 권84, 궁(弓), 0453-0454.
- 국립민속박물관(2004). **무예문헌자료집성**. 무예제보번역속집, 0218-0223.
- 국사편찬위원회(2015). **승정원일기**. 233책(탈초본 12책), 현종 14년 3월 11일 신사, 1673년 康熙(淸/聖祖) 12년 (<http://sjw.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2015).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9일 경신 4번째 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http://sillok.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2015).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오 2번째 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http://sillok.history.go.kr>)
- 김광석(2002). **조선창봉교정**. 서울: 동문선, 20.
- 김재민(2002). 국내무술단체들의 본국검(本國劍) 해석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대학원.
- 김 집(2005). **국궁교본**. 서울: 한성출판사, 56.
- 박금수(2005).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세(勢)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박청정(2007). **무예도보통지주해**. 서울: 동문선.
- 신영권(2012). 《武藝圖譜通志》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 이국노(2016). **실전 우리검도**. 경기도 용인: 직지, 342.
- 임성득(2013). **본국검예 2권 본국검법**. 서울: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178.
- 임재선(1997). 朝鮮朝 武藝圖譜通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 전영식(2008). 武藝圖譜通志의 本國劍에 대한 勢 分析과 技藝의 再現.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 정재성, 김성인(2016). 사료(史料)에 쓰인 용례(用例)로 본 본국검(本國劍) 의미. **동양문화연구**, 23, 149-172.
- 최형국(2020). 武藝圖譜通志의 銳刀 자세분석과 本國劍과의 연관성 연구. **무예연구**, 14(4), 1-28.
- 正 組 命撰(1790). 原本 武藝圖譜通志. 辛成大(1998) 펴낸이, 서울: 東文選.

ABSTRACT

A Study on Left Double Grip and Hands Changing Method of Jocheonse in Muyeodobongji Bonguggeombeob

Noh, Byeong-Eil(Korea Traditional Sword Martial Arts Promootion)
· Shim, Jun-Yeong(Brain Education Univ.)

This study was to re-examine and reproduce the meaning of original Jocheonse(朝天勢) and left double grip, hands changing method and separation and integrity cases of legend of 33 postures found only in Bonguggeombeob(本國劔法) of 24 martial arts of 『Muyedobotongji(武藝圖譜通志)』 synthetically. For this, the present study compared and examined pictures of Bonguggeombeob written in Chinese, Bonguggeomchongbo(本國劔總譜), Eonhaebon(診解本) in Korean and Bonguggeomchongdo(本國劔總圖) and related literatures focused on Jocheonse of Bonguggeom. The main conclusion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pictures of the original Bonguggeombo(本國劔譜) showed left double grip with left hand directed upward and the pictures of Jocheonse of Bonguggeomchongdo indicated right double grip with right hand directed upward separately. These different grip methods were originated in the pictures of left and right rotation of Jocheonse combining Bo and Do according to the legend of Muyedobotongji. Second, left double grip and right double grip of short weapons displayed in the pictures of 『Muyejebobeunyeuksokjib(武藝諸譜翻譯續集)』 Waegeombo(倭劔譜) showed the motion after changing hands in the process of doing motions. Third, left double grip has the advantage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attack and defense by operating short weapon and long weapon easily when left and right hand changing method is smooth.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echniques of all postures combined into Bo(譜) and Do(圖) in the introductory remarks of 『Muyedobotongji(武藝圖譜通志)』 should be connected, synthesized and interpreted.

Key words: Bonguggeom, Muyedobotongji, Jocheonse, Hands Changing, Left Double Grip

논문투고일 : 2021.09.30.

심사일 : 2021.10.20.

심사완료일 : 2021.11.14.